산업자원부 보도자료	http//www.mocie.go.kr
'06년 2월 2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자원개발과 신창동 과장(010-5293-4889), 송현주 사무관(2110-5437)	

해외자원 확보에 국내 주력산업 연계

- 발전설비 등 인프라 취약 자원부국에 우리 플랜트 수출 -

- 양측 상호 윈윈방식으로 자원확보戰 경쟁력 제고 -

22일, 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협의회 공식 출범

□ 기존의 "**돈 주고 사오는 해외자원 확보방식**"에서 자원부국이 필요로 하는 바를 우리가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원을 확보하는 "**상호 윈윈방식의 자원개발**"이 추진됨

○ 러시아, 중앙아시아, 아프리카 대륙의 **자원보유국**은 전력, 통신, 도로, 항만 등 **사회 인프라가 부족**하여 **자국의 자원개발과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연계**하고 있어

-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**발전설비, 플랜트, 조선, 통신 산업과 자원개발을 연계**하는 **동반진출 전략을 확대할 계획**이라고 **산자부는 밝힘**

□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내 자원개발기업, 에너지 유관기업, 해외진출 지원기관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**에너지 산업 해외진출협의회가 공식 출범**함

<< 협의회 회원 >>

민간자원개발기업(7) : SK, 대우 인터내셔널, GS칼텍스, 포스코, 삼성물산, 고려아연, (주) 삼탄

에너지 공기업(4) : 석유공사, 한전, 가스공사, 광진공

지원기관(3) : KOTRA, 플랜트 협회, 수출보험공사

○ 22일 개최된 **출범식**에는 **14개 협의회 대표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, 김용갑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**이 참석한 가운데

- 한국석유공사 **황두열사장**을 **협의회 초대회장**으로 **선임**하고, 협의회 사무국이 위치한 한국석유공사에서 **현판식**을 개최

□ 동 협의회에서 **정세균 산자부 장관**은 최근 전 세계적인 **고유가의 지속 · 전략광물의 수급 불안,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** 속에서

○ 자원개발분야의 **후발주자**인 **우리 기업**이 막대한 자금력과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**글로벌 메이저 업체와의 경쟁**에 이기기 위해서는

- **자원보유국의 수요**(needs)에 맞춰 우리측이 **경쟁력**을 가진 에너지 산업 인프라, 조선, 석유화학 등 **주력기간산업을 활용**하여 **해외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종합전략**이 필요하다고 강조

○ 주요 전략지역에 진출하기 위하여 **동반진출 프로젝트를 확대**하고,

- **유전개발 투자재원 확충, 자원개발 전문인력 확충, 에너지 관련 기반기술 혁신**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

□ 이어 진행된 **'06년 해외진출 전략발표**에서

○ **산업자원부**는 에너지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

① **유전개발펀드의 도입** ('06년 하반기 중 1호 펀드 출시)

② **對 산유국 협력강화** (산유국 주요인사 초청 · 연수 및 기술협력 등 추진, '06년 7억원)

③ 우수 · 신기술 제품의 **해외 시범사업 지원** (배연탈황설비, 전력선 통신(PLC), 송배전 시스템, 전력IT, '06년 10억원)

④ **해외 한국계** 에너지분야 **전문인력 DB 구축**

○ **석유공사**는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**6대 핵심 전략거점지역을 선정**하고, **지역별로 3~4개 운영권 확보사업을 추진**할 계획이라고 밝힘

* 6대 거점지역: 동북아, 동남아, 중미, 중동, 카스피해, 아프리카

○ **한국전력공사**는 중국 풍력·화력발전 프로젝트 등의 **플랜트 수출사업**을 **적극 추진**하고, 석탄의 자주개발률을 제고를 위해 지분인수 등 **적극적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**할 계획임

□ 한편 협의회 회원대표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**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체제 속에서**

○ **에너지 산업 및 유관산업의 해외진출,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**하였음

< 공동 업무 협약 체결 내용 >

- 해외진출을 위한 개별산업 정보지원
- 기초 조사의 공동 수행
- 발굴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
-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 검토
- 해외 인프라 공동 수행

□ **산자부**는 동 협의회는 **전략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핵심자원을 확보**하기 위한 동반진출 등 **구체적 전략**을 모색하기 위하여,

○ **분기별로 1회 협의회**를 개최하며, 세부 전략수립 및 논의를 위해 **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**할 계획

○ 또한 향후 **해외자원개발 진출에 필요한 유관 산업**(조선, 석유화학, 통신, 건설 등)**의 참여를 확대**할 계획이라고 밝힘

붙임 : 1. 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개최계획
2. 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및 동반진출 사례

<참고 1>

「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」 출범식 개최

1. 행사 개요

□ 일시·장소 : **'06.2.22(수), 15:00~16:20**, 석유공사 회의실(6F)

□ 참석 : **산자부장관, 산자위원장**, 에너지 업계 대표 등 16명

<협의회 개요>

◇ **목적**

○ 전력·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운영경험 및 관련 기술을 자원확보와 연계, "**한국형 자원개발 진출전략**" 모색

◇ **협의회 구성** : 총 14개 기관

○ 자원개발업체(7) : SK, 대우인터내셔널, GS칼텍스, 포스코 등

○ 에너지공기업(4) : 석유공사(사무국), 한전, 가스공사, 광진공

○ 지원기관(3) : KOTRA, 수출보험공사, 플랜트협회

2. 세부 진행 일정

* 진행 : 자원정책실장

시간 (분)	주요 내용	비고	장소
15:00~15:05 (05)	**인사말씀**	**장관**	회의실
15:05~15:10 (05)	협의회장 선임 및 인사말	협의회장	〃
15:10~15:30 (20)	해외진출 전략 보고 등	산자부 등 3개기관	〃
15:30~15:50 (20)	토 론		
15:50~16:00 (10)	공동업무 협약서 서명식 **- 격려사 (산자 위원장) -**	-	〃
16:00~16:10 (10)	참가자 환담	-	별 실
16:10~16:20 (10)	현판식	-	현 관

3. 행사별 주요 내용

□ "에너지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서" 서명식

○ 14개 협의회 회원사 전원

<협력 주요 범위>

해외진출을 위한 개별 산업 정보 지원, 사무국의 공동운영, 기초조사 공동수행, 발굴프로젝트 사업성 평가,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 검토, 해외 업무인프라 공동 활용, 기술·인력의 지원 등

□ "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" 현판식

○ 출범식 직후, 장관님,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사 대표 등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(석유공사 현관)

□ 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전략보고 및 토론

①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전략(산자부 자원정책국장)

* 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방안 및 주요 정책 추진 과제 등

② 에너지산업 분야별 해외진출 현황 및 향후 전략

- '06년 해외 석유개발 전략(석유공사)
- '06년 전력사업 해외 진출전략(한전)

③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운영계획 보고(사무국)

<참고 2>

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

① 유전개발 펀드의 도입 추진

□ '13년 자주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1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 필요,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를 도입

□ 유전개발사업의 높은 투자위험도, 불확실한 수익예측 등 특성을 감안하여, **세제 지원 및 투자위험 완화 제도 마련**을 추진

* '06상반기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하반기 1호 펀드 출시 목표

② 전략지역 산유국과 장기적·체계적 협력 추진

□ 중동·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산유국의 주요 인사 초청·연수 및 기술협력 등 추진('06년 7억원)

③ 우수 신기술 제품에 대한 해외 시범사업 지원

□ **국내 우수제품** 및 **국내 시범사업**을 통해 입증된 **신기술제품** (한전 등의 우선구매)을 **우선지원 대상**으로 선정하여 **추진**

* 예: 탈황·탈질설비, 송배전 시스템, 전력IT, 중전기기제품, 농어촌 전화사업 등

□ **'06년도 확보 예산** : 10억원(수요에 따라 지원확대 검토)

* '06년중 2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, '07년 이후, 점차 확대

④ 해외 한국계 에너지분야 수출전문인력 DB 구축

□ 전력산업 등의 육성 및 해외 수출활성화를 위해 산·학·연의 수출 전문인력 DB 구축 ('05.12 ~ '06.3월)

* 전력분야 업계 현황조사 및 플랜트 전문인력 DB 구축

<참고 3>

해외자원개발 동반진출 사례

① 나이지리아 : 전력사업 투자와 연계하여 탐사유전 획득

【성공내용】 **20억** 배럴 규모의 심해 탐사광구 낙찰('05.8.26)

○ 추정매장량이 각각 **10억** 배럴 수준의 초대형 **2개** 심해 탐사광구**(OPL321, OPL323)** 낙찰*에 성공('05.8.26)

* **아국 컨소시엄(65%)**, 인도 ONGC사(25%), 나이지리아 현지회사(10%)

○ 총 **20억** 배럴은 국내 연간도입량(8억배럴)의 **2.5배** 규모

○ 탐사 성공시 **예상 순수익 약 10~15억불*** 기대

* 기준유가 : 35~45$

【성공요인】 에너지 업계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진출

○ 국내기업(한전, 석유공사, 광진공, **kotra**)간 **MOU** 체결('05.7.21)

○ 국내 기업대표단(석유공사, 한전, 포스코건설)과 나이지리아 石油部간 「**유전개발 및 전력산업 진출 MOU***」 체결 ('05.7.25)

* 나이지리아에 225만kW 가스발전소 건설 및 총연장 1,200km 가스배관 건설참여를 조건으로 향후 광구 입찰시 유리한 입찰기회 부여

* **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**은 양국간 자원 및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면서 **대통령님을 초청**하는 **親書**를 우리기업 대표단에 전달(7.29)

【시사점】 전력 인프라 진출이 유전확보를 견인

○ 자원보유국의 전력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착안

○ 우리의 우수한 전력 플랜트 수출역량을 접목함으로써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기회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

② 베트남 : 우수한 탐사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권 획득 및 상업화 성공

【성공내용】 베트남에서 총 7억배럴 유전 확보

○ 우리의 탐사기술을 인정, 베트남 **15-1**광구에 참여('98)

- 탐사시추에서 **석유공사가 운영권자로 역할하면서 흑사자 유전발견**('00.10월)을 통해 **현재 8만 b/d 생산중**

○ 금사자('01.10), 백사자('03.11) 유전 발견을 거쳐, 최근 **4번째인 갈색사자**('05.9.1) **유전(1억배럴 규모)의 추가 발견으로 총 7억배럴의 매장량 확인**

【성공요인】 우리의 우수한 탐사기술을 적극 활용

○ **석유개발 R&D 및 전문인력 육성**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축적된 기술을 신규유전의 탐사에 적용

* 특히, 베트남 15-1광구는 지난 '79년 독일 Deminix社가 탐사 실패한 유전으로서 추후 우리가 탐사권을 확보하여 유전개발에 성공

○ 특히, **유전개발의 운영권자로 참여**하면서 탐사기술을 성공적 유전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

【시사점】 우수한 기술력이 자원개발과 직결됨을 시사

○ **단기간내 축적된 유전탐사기술이 자원 개발권 확보와 성공적 상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**

○ 매출액(4.5억불) 및 순이익(0.9억불) 등으로 **투자비(3.6억불) 旣 회수**함으로써 성공적 유전개발의 대표 사례

③ 인도 : 관련 플랜트 진출을 통해 자원확보를 해결

【성공내용】 향후 **30년간 6억톤의 철광석 확보**

○ Posco는 인도 오릿사州와 **일관제철소**(1단계 연간 3백만톤 → 최종 연간 12백만톤 규모) **건설 MOU 체결**

* 제철소 투자내역 : '07~'10년간 약 100억불 규모

○ 제철소 건설 조건으로 **철광석 총 6억톤**(연간 2천만톤, 30년)을 확보

○ 또한, **호주·브라질로부터 지나친 수입의존도(90%)를 완화**하였으며, 제철소 완공시 **슬라브 3백만톤 확보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**

【성공요인】 정상외교를 통해 자원확보 극대화

○ '04.4월 철광석 확보를 시도하였으나, **인도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**

* 인도는 자국의 **철강산업 보호차원에서 철광석 수출원천 금지**

○ '04.10월 **한·인도 정당회담을 통해 철광석 확보**

【시사점】 후방산업의 투자를 통한 자원확보 성공사례

○ 자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, **정상외교 및 후방산업의 투자**를 통해 핵심 자원 확보에 성공

○ 향후, **우리의 경쟁력 높은 후방산업**(석유화학·제철 등) 진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원확보가 가능함을 시사